

#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 동향\*

조원빈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 논문은 1955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에서 발행된 아프리카 지역연구 업적들의 연구 경향을 전문학술지와 학위논문, 주요 도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아프리카 대륙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평균 5% 이상의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중국이나 인도로 대변되는 신흥 발전국가들의 가파른 경제성장으로 초래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들 원자재를 수출하는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아프리카 대륙의 많은 국가는 1990년대 중반부터 민주주의 이행을 경험했고 2000년대 중반까지도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변해 왔다. 이러한 아프리카 대륙의 변화와 더불어 2000년대 들어 한국에서도 아프리카 지역연구에 대한 업적물들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논문은 아프리카 지역연구들 중 사회과학 분야에 한정해 연구 업적들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학술논문들의 양적 증가가 압도적이었으며, 이 지역의 정치/정책 분야의 경우 연구 주제도 다양해져 아프리카의 민주화와 종족 갈등, 한국과 중국의 대 아프리카 외교정책, 각 국가별 정치체제와 선거동학 등이 주된 연구 주제들이었다. 경제 분야에서도 변화된 아프리카의 시장 환경을 분석하고 한국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 가능성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연구 주제가 소개되었다. 다만, 이러한 연구 업적의 양적 팽창이 아프리카 연구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학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아프리카, 정치발전, 경제성장, 지역연구

## I. 서론

올 6월 대한항공사가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동부에 위치한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직항 항공편을 투입했다. 나이로비는 아프리카의 동쪽 관문으로 다수의 국제 기구(유엔환경개발기구(UNEP)와 유엔인간거주회의(UN-Habitat) 등)가 모여 있는 국제적 도시이며 이 지역의 관광 중심지다. 이 사례는 최근 한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변화된 인식과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

\* 논문 작성에 큰 도움을 준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생 오현숙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국의 각 기업체들이 ‘기회의 땅’인 아프리카 시장에 본격 진출하거나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과연 한국은 아프리카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한국 사회가 가장 쉽게 아프리카를 접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TV를 통해 방송되었던 <동물의 왕국>이나 저 멀리 아프리카 초원에서 아직도 전통적인 삶을 사는 부족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서이다. 물론, 최근에 유명 연예인들이나 NGO, 종교 단체 등이 봉사활동을 위해 아프리카를 방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아프리카의 전부가 아닌 일부다.

아프리카 대륙의 면적은 중국과 인도를 합한 것과 비슷하지만 인구밀도가 아주 낮아 전체 인구는 10억에 못 미친다. 그 이유는 이 지역 평균 경제발전 정도가 세계 어느 지역보다 낮고 그에 따라 보건시설도 열악하며 영양공급도 충분치 않아 영아사망률이 높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HIV/AIDS가 광범하게 퍼져 있어 성인 기대수명이 아주 낮다. 더욱이 이 지역 여러 국가는 아직도 종족 간 분쟁이나 내전을 경험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54개 국가가 존재한다. 여기에는 지난 7월 9일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남수단도 포함된다.

이처럼 아프리카 대륙은 아주 광범한 지역을 포괄하며 여러 국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의 다양성 정도도 매우 높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남부에 속한 보츠와나(Botswana)는 이 대륙에서 가장 오랫동안 복수 정당이 참여하는 선거를 정기적으로 행해 왔을 정도로 사회·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다. 특히, 보츠와나는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생산국이며 이로부터 얻어진 경제이득을 비교적 균등하고 효율적으로 분배해 2010년 현재 1인당 국내총생산이 1만 4000달러나 된다. 더욱이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보츠와나는 196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한국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꾸준히 경험한 국가들 중 하나다.

반면 아프리카 대륙 중앙에 위치하며 아주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콩고민주공화국(D.R. Congo)은 지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3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프리카의 ‘세계전쟁’을 겪었고, 지금도 우간다(Uganda)와 르완다(Rwanda)에 접경한 동부지역은 군인과 무장 시민군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쟁의 주원인은 콩고민주공화국이 보유한 풍부한 천연자원에 대한 약탈 혹은 통제권

쟁취에 있다.

1987년 우리나라를 거쳐 간 민주화 물결은 1990년대 초 아프리카 대륙에도 밀려들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 40개국에서 복수 정당이 참여하는 선거가 이루어졌으며, 이들 중 11개국에서 야당이 선거에 승리해 과거 권위주의 세력을 물리친 경우도 있다. 우리에게만은 만델라 대통령으로 친숙한 남아프리카 공화국(South Africa)과 아프리카 대륙 옆에 위치한 커다란 섬나라 마다가스카르(Madagascar)도 여기에 속한다. 아프리카 대륙에 속한 국가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에서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아프리카는 검은 대륙으로 빈곤율이 매우 높고 부패가 심하며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대륙이다.

한국의 아프리카 지역학 연구 현황은 어떨까? 한국의 아프리카 지역연구는 꽤 역사가 깊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속한 아프리카연구소는 1977년에 출범했으며,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결성된 한국아프리카학회는 1986년에 창립되었다. 이밖에도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아프리카연구소, 명지대학교 아랍아프리카센터, 영산대학교 아프리카문제연구소, 아프리카문화연구소 등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한양대학교에 유럽-아프리카연구소가 설립되어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학문적 공동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1955년부터 2012년까지 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연구 업적들의 양적 변화 추이를 분석하려 한다. 다음 장에서는 아프리카의 경제상황과 변화뿐만 아니라 정치상황과 변화, 한국과의 교역 관계를 살펴본다. 제III장에서는 분석 대상인 아프리카 지역연구 업적들을 출판 유형별 그리고 전공별로 분류한다. 그리고 분류된 연구 업적들을 출판 유형별로 지난 반세기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추이를 살펴본다. 마지막 결론에서 아프리카 지역연구 업적의 양적 변화를 정리하고 이를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II. 아프리카 개관 및 한국과의 관계

### 1. 경제상황과 변화

아프리카는 2011년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15%인 10억 명이 사는 큰 대륙으로 54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면적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3000만 평방킬로미터를 차지한다. 이는 지구 육지 면적의 20%가 넘는 것으로 중국과 인도를 합한 면적보다 넓다. 아프리카는 천연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저발전된 대륙이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전 세계 코발트의 90%가 매장되어 있으며 백금의 90%, 금의 50%, 크롬의 98%, 우라늄의 34%가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현재 사하라 사막 이남에 거주하고 있는 아프리카인들 중 80%가 하루 생활비 2.5달러에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다소 긍정적인 것은 지난 1995년부터 2005까지 이 지역 연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5%에 도달했으며 앙골라(Angola)와 수단(Sudan), 적도 기니(Equatorial Guinea) 등은 이보다 확연히 높은 경제성장률을 경험했다. 이들 세 국가 모두 석유를 추출하기 시작했거나 그 추출 용량을 확대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림 1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성장률이 3.1%로 하락했을 뿐 대부분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을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로 구분하면 후자의 경제성장률이 전자보다 확연히 컸다. 2002년과 2004년, 2007년의 경우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경제성장률은 7%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이처럼 아프리카 대륙이 지난 10년간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나 인도로 대변되는 신흥 발전국가들의 높은 경제성장이 가져다준 결과였다. 이들 국가들의 가파른 경제성장으로 초래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들 원자재를 수출하는 아프리카 지역의 여러 국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의 저발전과 천연자원 개발은 외부의 투자를 이끄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특히 경제적인 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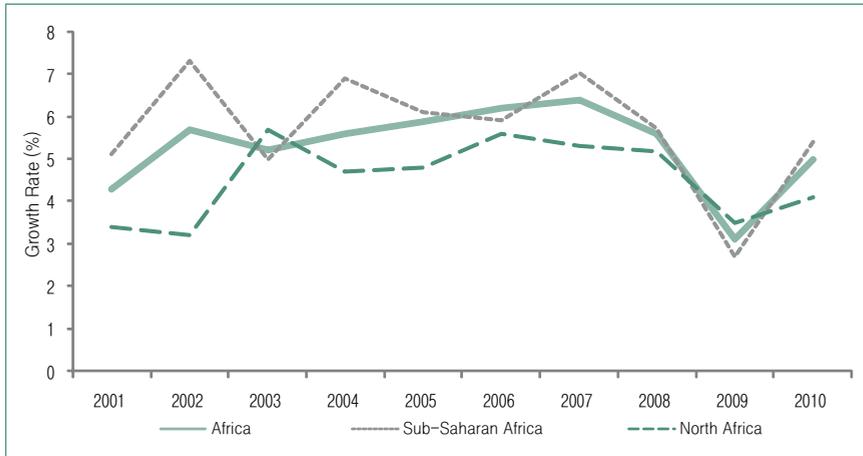


그림 1 아프리카 경제성장률 추이(%)

면에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중국의 교역 규모는 1999년 60억 달러 규모에서 2010년 현재 1200억 달러로 증가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교역국 중 그 규모 면에서 가장 크며 중국의 원유 수입량 중 1/3이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진다. 아프리카는 천연자원, 특히 원유와 철, 구리, 원목 등을 중국에 수출해 중국 산업에 원자재를 제공하고 중국은 여기서 생산된 각종 공산품들 — 신발이나 의류부터 건설 중장비까지 — 을 아프리카로 수출한다. 특히, 원유를 비롯한 지하자원에 대한 중국의 수요 증가는 이들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지하자원 수출국인 아프리카 국가들의 실질 국민소득 향상으로 이어졌다. 현재, 다수의 중국 회사들은 앙골라와 수단에서 유전을 개발하고 에티오피아(Ethiopia)의 도로 건설, 케냐(Kenya)의 전력 관련 사업, 시에라리온(Sierra Leone)의 관광산업 개발, 나이지리아(Nigeria)의 휴대전화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다. 그리고 매년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 정부에 다양한 형태의 원조나 차관을 제공해 천연자원을 확보하거나 사회간접시설 계획에 투자하고 있다. 이처럼 아프리카와 중국 간의 교역은 지난 10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다.

중국과 더불어 인도도 아프리카 대륙에 무시할 수 없는 원조 국가로 등장하고 있다. 2011년 5월 제2차 아프리카-인도 포럼이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에서 개최됐다. 인도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아프리카의 교역

상대국이다. 아프리카와 인도 간 교역 규모는 지난 10년 동안 열다섯 배나 커져 2010년에는 그 규모가 460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리고 2015년에는 그 규모가 700억 달러에 이르리라 예상하고 있다.

## 2. 정치상황과 변화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지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사하라 사막 이남의 48개국들 중 18%만이 “자유로운(Free)” 국가이며 43%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Partly Free)” 국가, 나머지 39%가 “자유롭지 않은(Not Free)” 국가로 구분된다(Freedom House, 2012). 이는 중동지역 다음으로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 수준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41%의 국가가 “자유롭다”고 평가되었으며,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도 45%의 국가가 “자유롭다”고 평가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민주주의 이행을 경험했던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2000년대 중반까지도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움직여왔다. 그러나 지난 2010년부터 이러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이동이 정체상태에 머무르거나 심지어는 반대방향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림 2는 1989년부터 2011년까지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 속한 국가들 중 프리덤하우스에서 판단하는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 기준을 만족하는 국가들의 비율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선거민주주의의 기준으로는 다음 네 가지가 있다. 우선, 경쟁적인 복수 정당이 참여하는 정치체제여야 한다. 둘째, 일정 나이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비밀투표가 보장되며 정기적으로 비교적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정당과 유권자 사이에 자유로운 접촉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림 2가 잘 보여주듯이 1994년 이 지역의 국가들 중 38%가 선거민주주의 기준을 만족했으며 그 이후 지속적으로 그 비율이 증가해 2005년에는 50%에 이르렀다. 당시 24개 선거민주주의 국가들 중 11개 국가가 “자유로운” 민주주의 체제였으며, 13개 국가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민주주의 체제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로 이 지역의 선거민주주의 국가 비율이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2011년 현재 19개 국가(39%)만이 선거민주주의 체제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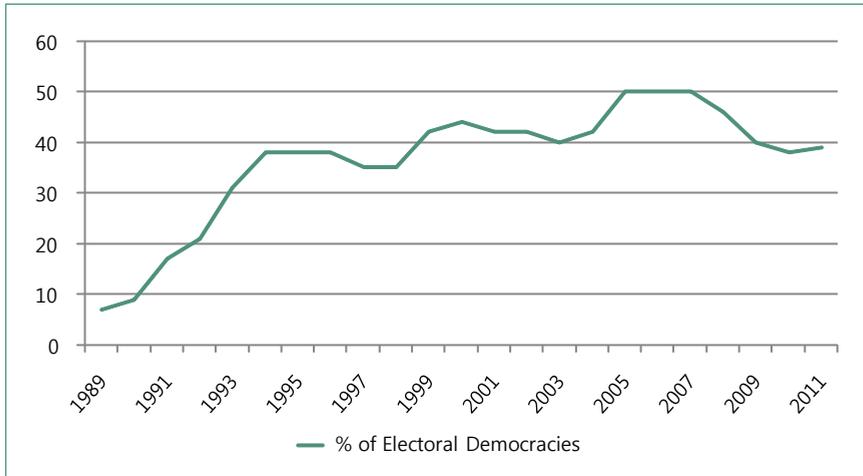


그림 2 아프리카 선거민주주의 국가 비율 추이(%)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민주주의 수준이 가장 크게 하락한 10개국들 중 5개국이 아프리카에 있다: 감비아(Gambia)와 에티오피아(Ethiopia), 부룬디(Burundi), 르완다(Rwanda), 드지보우티(Djibouti) (Freedom House, 2012). 이 다섯 국가들 중 감비아의 민주주의 수준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수준에서 “자유롭지 않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러한 하락의 요인은 2005년 대통령 선거 이후 야당이 더 이상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고 선거 자체도 공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1994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획득하고 1996년부터 도입된 대통령 선거 이래 계속해서 네 차레나 대통령으로 당선된 야하 자메(Yahya Jammeh) 대통령은 야당뿐만 아니라 미디어와 시민사회도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해 왔다. 에티오피아의 사례도 지난 10년간 권위주의 경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경우다. 올해 사망한 에티오피아 전 수상 멜레스 제나위(Meles Zenawi)는 1995년 이래 에티오피아를 통치해 왔으며 지난 10년 동안 테러리즘방지법을 악용해 야당 정치인들과 저널리스트들을 탄압해 온 것으로 악명이 높다.

반면, 2011년에 민주주의 수준이 향상된 국가들도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코트디부아르(Cote d'Ivoire)다. 2010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로랑 그바그보(Laurent Gbagbo)가 선거에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 여러 달 동안 시민과 야당의 저항을 겪었다. 선거에서 승리한 야당의 대통령 후보자였던 알라산

와타라(Alassane Ouattara)가 혼란을 종식시키고 대통령에 취임한 후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니제르(Niger)도 군사통치를 종식하고 비교적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이 정치적 권력(political rights)이 확대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 3. 한국과의 관계

2012년 현재 한국은 아프리카 대륙 내 54개국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 중 22개국에 상주 공관이 있다.<sup>1</sup> 한국의 대 아프리카 교역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2011년 현재 한국의 전체 교역액(1조 796억 달러) 중 대 아프리카 교역액 비중은 약 2.32%(250억 달러)에 불과하다.

표 1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대 아프리카 교역량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한국의 전체 교역액에 비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긴 하나 그 양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6년에서 2011년까지 5년간 교역량은 60% 정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국가별 한국의 수출액을 보면 2011년 기준 수출액 상위 다섯 국가(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남아공, 이집트, 알제리)에 대한 수출액이 전체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수출액의 75%를 차지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2012). 뿐만 아니라 2011년 한국의 대 아프리카 수입액의

표 1 한국의 대 아프리카 교역량, 2006~2011년(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	금액	9,973	11,309	13,322	12,993	15,608	18,122
	증가율(%)	23.6	13.4	17.8	-2.5	20.1	16.1
수입	금액	5,740	6,059	6,595	4,488	6,290	6,883
	증가율(%)	63.0	5.6	8.8	-31.9	40.2	9.4
총교역액		15,713	17,368	19,917	17,481	21,898	25,005

출처: 한국무역협회.

<sup>1</sup>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공, 리비아, 모로코, 세네갈, 수단, 앙골라, 알제리, 에티오피아, 이집트,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튀니지, 우간다, 르완다, 적도기니.

표 2 한국의 대 아프리카 유·무상통합 지원 총액(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대 아프리카 무상	규모	17.83	26.090	51.86	73.53	69.17	101.41	211.29
	비율(%)	5.6	10.1	14.5	19.9	18.8	17.7	21.2
대 아프리카 유상	규모	24.58	25.24	21.94	33.58	28.28	41.19	60.06
	비율(%)	14.9	17.7	13.1	16.0	11.4	11.5	13.1
대 아프리카 유·무상	규모	42.41	51.33	73.8	107.12	97.44	142.60	181.37
	비율(%)	8.8	12.8	14.0	18.5	15.8	15.3	17.6

출처: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

절반을 남아공(30억 달러)이 차지했다. 이처럼 제한된 아프리카 국가들과 집중적인 교역 양상은 앞으로 한국의 대 아프리카 교역 국가 다변화를 통해 교역액의 증가를 도모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표 2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대 아프리카 양자원조 규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06년 이후 유상 및 무상원조 모두 꾸준히 두 자리 숫자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은 2009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특별회의에서 24번째 회원국으로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다. 더욱이 DAC 회원국 중 비서구 회원국은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이것으로 한국은 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첫 번째 사례가 됐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8년 제 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ODA/GNI 비율을 2012년 0.15%, 2015년 0.25% 까지 증가시키는 중기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목표를 의결했다. 이를 달성하면 2015년 ODA 규모가 약 30억 달러에 이르게 된다.

표 2는 또한 한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유·무상 원조 비율의 변화도 보여주고 있다. 2007년부터 대 아프리카 무상원조 규모가 유상 원조 규모보다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DAC 회원국들이 유상원조를 거의 하지 않거나 축소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한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 전략도 점차적으로 유상원조 규모를 줄이고 무상원조 규모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III. 아프리카 연구 동향

이 장에서는 1955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에서 발행된 아프리카에 관한 연구 업적들의 연구 경향을 전문학술지와 학위논문, 주요 도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료의 방대함 때문에 이 장에서는 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행해져 왔던 아프리카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있다.

표 3은 이 논문이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업적들을 간략하게 분류하고 있다. 우선, 아프리카에 대한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 논문이 참고하는 자료는 총 1418가지이다. 이 중 60%가 주요 학술논문들이며 그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국가기관이나 연구소에서 출판하는 연구보고서나 저서들로 19%를 차지하고 있다. 다수의 학술논문은 『아프리카연구』, 『아프로아랍연구』, 『국제지역정보』, 『국제지역연구』, 『국제정치논총』 등의 전문학술지에 출판되어 있다. 이 중 『아프리카연구』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속한 아프리카 연구소에서 1982년부터 출간해 오고 있다. 이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들은 아프리카의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언어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다루고 있다. 『아프로아랍연구』는 명지대학교에 소속된 아랍아프리카센터에서 1999년에 창간했다. 아랍아프리카센터는 1997년 출범한 이슬람지역경제연구회를 확대 개편한 연구소이며 중동 및 아프리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지역연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에서 1997년에 출간되었으며 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 분석 등을 제공해 왔다.

표 3 아프리카에 관한 연구 업적 분류

구분	학술논문	학위논문	저서	저서(국가기관, 연구소 계열)	합계
정치와 정책	286	69	15	27	397
경제	283	52	33	150	518
기타	280	8	96	10	394
사회			33	76	109
합계	849	129	177	263	1,418

1963년 창간된 『국제정치논총』에도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실려 있다. 더욱이 1963년 창간호에는 하경근(1963)의 논문 “남아공화국의 Apartheid 정책연구: 주로 원주민문제를 중심으로”가 실려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17세기 유럽에서 케이프타운으로 이주한 유럽인들 중 Afrikaner를 사용하는 아프리카너(Afrikaner)의 정치의식 구성과 발달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partheid 체제의 정치, 경제, 사회적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 정치학회의 전문 학술지인 『한국정치학회보』에도 1974년 출판된 제8권에 박상식(1974)의 논문 “아프리카의 정치체제: 하나의 유형론적 시도”가 실려 있다. 당시 미국 햄튼대학에 적을 두고 있던 저자는 당시 서구 중심적 정치체제 유형론을 아프리카 지역에 무비판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당시 아프리카 대륙 대부분의 정치체제가 1당지배체제(18개국) 혹은 군부체제(16개국)였다. 이에 저자는 군과 민간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정치체제를 유형화하고 있다.

표 3은 또한 연구 주제별로 이 논문이 분석하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연구 업적들을 분류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 대한 연구 업적이 전체 연구 업적의 3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치와 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 업적(28%)이었다. 이 밖에 법, 지리, 교육, 군사 등을 포괄하는 기타 영역도 전체 연구 업적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 특이한 점은 1960~1980년 사이 대부분의 아프리카 경제에 관한 연구물들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간하는 『농협조사월보』를 통해 소개되었다. 1980년 이후 최근까지 국제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지역경제』지를 통해 아프리카 경제의 전반적인 이슈들을 다룬 논문들이 다수 출판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1980년 이후로는 아프리카 경제에 대한 석사학위 논문들이 다수 생산되어 왔다. 이처럼 아프리카 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논문의 증가는 정치/정책 분야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들 학위논문 중 정치/정책 분야에 대한 논문이 69편(5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제 분야에 대한 학위 논문(52편)이었다.

반면, 저서의 경우 정치/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 업적이 15권(8%)으로 적다. 이들 15권에는 1972년 일조각에서 출간한 하경근의 『아프리카 정치론』이 있다. 하경근의 『아프리카 정치론』은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를 연구한 첫 저서였으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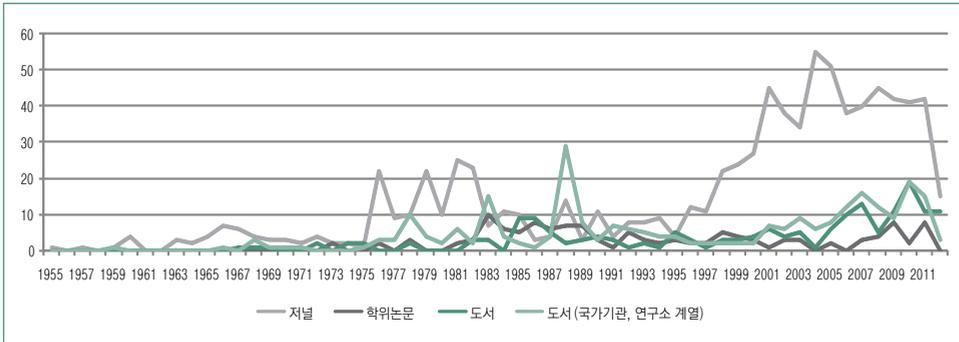


그림 3 아프리카 연구 업적 수 출판 유형별 추이(2012년 10월 현재)

지역에 대한 연구의 초석이 되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기존의 그릇된 인식을 수정하고 아프리카의 아프리카적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아프리카의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프리카 민족주의의 특성을 분석했으며, 이것이 국가건설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정치체제에서 군부의 역할을 그들의 상이한 기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범아프리카주의가 아프리카민족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이밖에 다수의 저서들이 정부 부처(외무부 혹은 상공부)나 그 산하 연구기관들에서 출판되었다.

그림 3은 아프리카 연구 업적의 수를 출판 유형별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여주고 있다. 우선, 전문 학술 저널에 실린 논문 수의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 중반까지 한 자리 숫자의 학술논문들이 저널을 통해 출판되었다. 1976년부터 1982년까지 해마다 10편 이상, 때로는(1976년, 1979년, 1981년, 1982년) 20편이 넘는 학술논문들이 출판되었다. 1976년 북한연구소에서 출간하는 『북한』이란 학술 잡지에 특집으로 “동서화해의 사각지: 아프리카”라는 주제로 논문 여섯 편이 출판되었다. 이 중에는 김덕(1976)의 “아프리카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한영구(1976)의 “정치체제의 유형과 국민적 통합” 등의 논문들이 있었다.

1983년부터 1997년까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학술논문들의 수는 많이 줄었지만 꾸준히 해마다 몇 편의 학술논문들이 출판되었다. 1998년부터 학술논문의 수가 매년 20편 이상 출판되기 시작했고, 2004년과 2005년에

는 50편이 넘는 학술논문들이 출판되었다. 이 시기에는 앞서 소개했듯이 『아프리카연구』와 『국제지역정보』, 『아프로아랍연구』, 『국제지역연구』, 『불어문화권연구』 등 다수의 학술 잡지들이 활발하게 아프리카 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논문들을 다수 출판했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아프리카 지역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위논문은 학술논문의 폭발적 증가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1973년 사회과학 분야에서 최초로 두 편의 석사학위 논문이 출판되었다. 박정일(1973)은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나이지리아 지역연구”를 석사학위 논문으로 썼으며, 기원국(1973)은 “북아프리카의 대외무역동향에 관한 연구”를 석사학위 논문으로 출판했다. 이후 1981년부터 매해 한 자리 숫자의 학위논문들이 생산되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수의 석사학위 논문들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해외원조 혹은 NGOs의 역할 등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저서 수의 증가는 2006년부터 매해 두 자리 숫자로 늘어났다. 1980년대 중반 산업연구원에서 시리즈로 아프리카 지역 개별 국가에 대한 소개서를 발간했다. 뿐만 아니라 1988년부터 1992년까지 당시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에서도 아프리카 지역의 개별 국가들에 대한 개괄서를 시리즈로 출판했다. 2000년 이후 아프리카에 대한 저서들은 학술서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를 소개하는 여행기나 소설, 에세이들이 다수를 점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연구 업적들이 양적인 면에서 크게 증가하는 것은 다른 지역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에서도 저서뿐만 아니라 논문 수에서도 크게 늘었다(엄구호, 2012).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생산된 연구 업적이 전체 연구 업적의 50%를 넘고 있다(홍옥현, 2012). 이러한 지역연구의 양적 증가가 질적인 면 혹은 심화된 지역연구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다.

그림 4는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 혹은 정책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연구 업적 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정치/정책 분야에서 처음으로 출판된 논문은 한기련(1955)의 “불란서의 고민과 아프리카의 폭동”이다. 이 논문은 1955년 출판된 학술저널인 『지방행정』 4권에 실렸다. 1976년에 갑자기 정치/정책 분야에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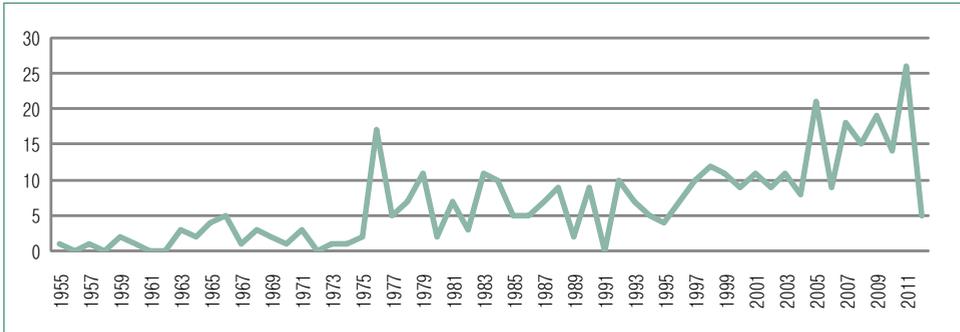


그림 4 아프리카 연구 업적 수 추이: 정치/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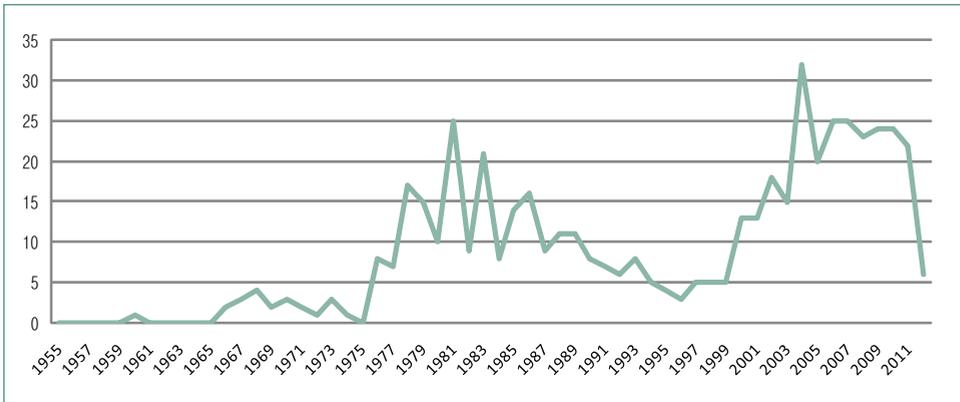


그림 5 아프리카 연구 업적 수 추이: 경제

산물이 17개로 증가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1976년 『북한』이란 학술저널에 아프리카 특집호가 출판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과 『상공경제』 등에서도 아프리카의 정치/정책에 관한 논문들이 다수 출판되었다.

이후, 1997년부터 매년 두 자리 숫자의 연구 업적이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정책 분야에 출판되어 왔다. 연구 주제도 연구의 양과 비례해 많이 다양해졌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의 민주화와 종족 갈등, 한국과 중국의 대 아프리카 외교정책, 아프리카 대륙 내 국제기구, 각 국가별 정치체제와 선거동학, 아프리카 여성의 정치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5는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연구 업적 수의 변화

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 분야에 대한 연구 업적들이 매년 한 자리 숫자에 머물다 1978년 이후 두 자리 숫자로 늘어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말까지 이어졌다. 이때 출판된 연구 업적들은 대부분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개발과 한국의 경제협력 방안 등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 지역의 석유 개발과 건설 경기 상승에 맞추어 한국 기업이 아프리카에 진출할 수 있는지 혹은 아프리카 진출이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지 등에 대한 논문들이 다수였다. 동서 냉전체제가 붕괴된 후 10년 동안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 분야에 대한 연구물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 매년 한 자리 숫자의 연구 업적이 출판되었다. 2000년부터 경제 분야에 대한 연구 업적들이 다시 많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20여 편의 연구 업적들이 출판되었다.

이처럼 아프리카 경제 분야에 대한 연구 업적의 증가도 연구 주제의 다양성으로 이어졌다. 변화된 아프리카의 시장 환경을 분석하고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 가능성을 분석하는 논문들이 많았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통신사업과 IT 분야에 한국 기업 진출 가능성과 손익을 계산하는 연구들도 많았다. 또한, 중국과 아프리카의 경제 협력을 다루면서 한국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강조하는 논문들도 다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전략들을 다루는 연구 업적들이 출판되기 시작했다.

#### IV. 결론

1955년부터 2012년 사이에 한국의 아프리카 지역연구 업적은 확연히 증가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학술논문 중심으로 그 양적인 증가는 놀랍다. 전문 학술논문의 양적 증가는 논문들이 다루는 주제의 다양성 증가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최근 들어 학술논문의 양적 증가와 연구 주제의 다양성이 아프리카 지역연구 업적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졌는가는 연구의 누적과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의 주제를 벗어난 것이다. 다만, 필자가 이 논문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접하게 된 각각의 논문들의 초록들을 보면, 대다수의 논문이 연구 주제에 대한 분석적인 논문보다 아프

리카 지역의 정치 및 경제, 사회 상황들을 기술하거나 특별한 주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 양식의 논문들이었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한국의 관심도가 높아진 것은 최근의 현상이며 지난 21세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아프리카 지역의 다양한 면들과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학문적으로 한국 사회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연구의 질적 향상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아프리카 지역연구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을까? 우선, 아프리카 연구를 위한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앞서 소개했듯이 현재 아프리카 지역 관련 연구소가 많지 않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연구를 위한 재정적 지원도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가 2010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HK) 해외지역사업에 유망연구소로 선정되어 2020년까지 안정적으로 아프리카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은 올해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나이지리아와 남아공을 지정해 본 사업을 수행할 연구소를 찾고 있다.

둘째,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학제적 연구를 지향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아프리카 연구 업적 외에도 국내에는 좀 더 공고한 인문학적 연구 업적들과 인적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아쉬운 것은 다수의 아프리카 지역연구 업적들이 각각의 학문 분야에 고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아프리카학회를 통해 다양한 전공영역의 전문가들이 매년 두 차례 정기 학술대회를 통해 서로의 연구 업적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셋째, 아프리카 지역연구를 위한 후학 양성에 힘써야 한다. 국내의 대학들 중 아프리카 지역연구와 관련된 강의를 정기적으로 개설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학부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이 프로그램은 아프리카 관련 어문학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아프리카 지역연구의 초보적인 전문연구자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원 과정도 확대해야 한다. 본문에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지난 50여 년 동안 아프리카 지역연구를 포함하는 학위논문의 증가율은 학술논문의 그것에 비해 매우 미미하다. 1980년대 중반부터 매년 이

분야에 대한 학위논문 수가 꾸준히 이어지지만 한 자리 숫자를 넘긴 해는 아직 없다.

넷째, 한국의 시각에서 아프리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 아프리카 연구자들이 서구의 관점에서 연구된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들 연구 또한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서구 중심의 아프리카 연구는 주로 근대화론, 정치발전론뿐만 아니라 헌팅턴(Samuel Huntington) 중심의 수정주의적 시각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이론의 기반이 된 서구의 제도 및 가치규범들은 아프리카의 특수성을 설명하는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가 단순히 서구의 연구 업적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 아프리카에 대한 자료의 축적과 분리를 시작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적 이해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거시적인 측면에서 아프리카를 하나의 총체로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측면에서 47개국의 다양성과 그들에 포함된 다양한 종족과 그 종족들의 다양한 문화 등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확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지역을 연구하는 학술저서 단행본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학에서 학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 사용할 교재 개발에도 힘써야 한다.

투고일: 2012년 11월 11일 | 심사일: 2012년 12월 4일 |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12일

## 참고문헌

- 기원국. 1973. “북아프리카의 대외무역동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무역(경제)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 김덕. 1976. “아프리카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북한』 53, 150-157.
- 박상식. 1974. “아프리카의 정치체제: 하나의 유형론적 시도.” 『한국정치학회보』 8, 121-131.
- 박정일. 1973.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나이지리아 지역연구.” 성균관대학교 무역(경제)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 엄구호. 2012. “한국의 중앙아시아 연구 동향.” 『아시아리뷰』 2(1), 121-152.
- 하경근. 1963. “남아공화국의 Apartheid 정책연구: 주로 원주민문제를 중심으로.” 『국제 정치논총』 1, 48-65.
- \_\_\_\_\_. 1972. 『아프리카 정치론』, 서울: 일조각.
- 한기련. 1955. “불란서의 고민과 아프리카의 폭동.” 『지방행정』 4(10), 18-22.
- 한국무역협회. 2012. 한국무역통계(<http://stat.kita.net/>).
- 한영구. 1976. “정치체제의 유형과 국민적 통합.” 『북한』 53, 158-165.
- 홍욱현. 2012. “한국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 동향.”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학술회의(11. 15) 발표 논문.
- Freedom House. 2012. *Freedom in the World 2012*. New York: Freedom House.

---

**Abstract**

## Korean Research Trends in African Studies

Wonbin Cho Sungkyunkwan University

---

This study analyzes the research trends in African studies based on scholarly works published in South Korea from 1955 to 2012. Many African countries have experienced economic growth since the year 2000, marking an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more than 5%. Such a rapid economic growth owes to the rapid growth of the economies of newly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India, Brazil, and Russia. Many African countries have benefitted from providing these countries with a lot of natural resources at a relatively good rate. In addition, many African countries have institutionalized their democratic and political organizations ever since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swept through this region in the 1990s. These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s have led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research in African studies by South Korean researchers. Among them, this article focuses on those researches of the social scienc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since the year 2000, the number of research in African studies has dramatically increased and that the research themes have also become more diversified. For example, many political scientists have recently shown their interest in areas such as democratization, ethnic conflict, Korean foreign policy regarding African countries and political institutions, as well as in the elections in many emerging democracies within the region. Also, many economists have recently explored the

African market conditions and have analyzed the possibility of market access by Korean companie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quality of research in African studies should catch up to their increasing quantity.

**Keywords |** Africa, area studies, democratization, economic development